고은 불교대하소설

쌀이 실려온 배

이제 우녀는 혼자만의 나날을 살고 있었다.

그동안의 처소들이야 다시 세울 수 없었으므로 그는 생각 끝에 섬 중턱의 그다지 깊이 들어가지 않은 바위굴에 널판과 낙엽 등속을 두껍게 깔고 그곳으로 침구나 옷가지 그리고 살림살이 도구들을 옮겨놓았다.

그 바위굴 서쪽 모퉁이에 단단한 참나무를 괴어서 해우소(解憂所)도 마련해 놓았다.

거기서는 저 아래쪽의 생활에서 보던 일 쪽이 더 또렷또렷 기억 속에서 돋아나오는 것인지 모른다.

매미소리는 그 소리에 어떤 뜻이 있든 없든 무작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마음이기보다 그 마음이 없는 경지에 가까운 노릇이기도 하였다. 무심(無心)이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가 아니다. 비록 그런 호수 위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한 마리 고기의 첨벙! 하는 소리까지도 무심일 터이고 바람 불어 물결이 부산하게 이는 것도 무심일 터이다.

"그놈들 공부 잘한다… 나도 공부나 할 일이다."

우녀는 혼자 바위굴 안으로 들어가 어느새 정든 그 굴안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넣지 않고 앉아 있었다.

숨이 고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였다. 숨이 곧 우주의 뜻이 아니던가.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여름 막바지의 사납기까지 한 매미소리는 굴안으로 그 일부분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런 매미소리가 우녀의 식구이기도 하고 새삼스러운 무정(無情)의 도반이기도 하였다.

아니, 매미인들 어찌 무정의 생명만이겠는가. 그는 지난시절 예성강 벽란도나루를 떠도는 동안에도 "너 같은 년은 매미가 아니라 매미 벌레처럼 차라리 땅속에 묻혀서 사는게 좋겠다"라는 봉노방 아낙네의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핀잔은 차라리 아낙네 자신의 기구한 삶과 우녀가 밥 한 덩어리를 구걸하는 일을 아울러 자조하는 뜻이기도 했던 것이다.

과연 매미는 그것이 아직 유충(幼蟲)일 때는 땅속에서 7년정도, 아니 어떤 매미 유충은 16년이나 17년까지도 보내다가 땅 위에 나와 한 여름을 살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름 얼마동안의 삶을 위해서 실로 길고 긴 인고(忍苦)의 시간을 지냄으로써 땅 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도 우렁찬 소리, 끈질긴 소리, 멈출줄 모르는 소리로 울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지진의 기운은 더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무욕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섬 자체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벌써 섬 전체의 나무잎새들과는 달리 햇볕이 강하게 내리꽂히는 언덕의 담쟁이 잎새나 옻나무 잎새는 붉은 빛깔을 띠고 있었다.

우녀는 시간을 정하는 생활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야 아주 적은 양의 생쌀 반줌으로 배를 채워주는 일을 어렵사리 계속하게 되면 몸 속의 위장이나 소장 대장 따위도 그런 사정에 맞게 꽤이나 줄어들었는지 그만큼 공복감이 줄어들었다.

그는 그 자신의 몸에 저으기 고마워하였다.

부처님은 가야의 고행 당시 좁쌀 몇알을 하루의 끼니로 삼아 해골 형상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 고행에 견준다면 아직 쌀 반줌 미만이야 아주 넉넉한 밥이었다.

우녀는 차츰 소금도 삼가기 시작하였다.

소금은 파도자락이 훑어간 바위등성이에 하얗게 깔려있기도 하거니와 바닷물 자체가 소금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몸속에 넣지 않게 되자 차츰 우녀의 몸은 가벼워졌다. 활짝 개인 날의 새 날갯속 깃털처럼.

우녀는 낮과 밤의 운행에 따라 사는 일조차도 그것이 천지 우주의 이치라기보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일, 즉 자연이 아니라 인위(人爲)의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 때문인지 그는 한낮에도 시원한 굴 속 아니 어둑어둑한 굴속에서 아주 잠자기 좋은 환경을 아깝게 허비하지 않는 것처럼 실컷 자기도 하였다.

우녀는 바위굴로 처소를 옮겼다 무심한 그의 마음에 화두가 들어와 있었다

그렇게 자고 나면 벌써 밤의 바다는 어둠이 어느 곳 하나 내버려두지 않고 골고루 그 어둠의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

그런 잠 속에는 우녀의 정신상태가 치열한 수행의 지혜나 어리석은 지난 날의 범속이거나를 막론하고 이따금 꿈도 꾸는 것이었다.

그 자신이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으로 바뀌기도 하는 꿈을 꾼 뒤 깨어나서 무심코 배꼽 아래에 손을 가져가보기도 하였다. 혼자 쓰겁게 웃었다. 꿈을 깬 뒤에는 여전히 여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그 경전이 이루어진 후대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인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얼마든지 해탈의 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대인도의 마누법전(法典)이 말하는 바, 여자는 아비에게 복종하고 시집가서는 지아비에게 복종하고 어미가 되어서는 자식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 철저한 성차별에 견주면 법화경의 해탈 취지는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이 경전도 그런 여자의 해탈은 그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바뀌져야만 실현된다고 토를 달고 있으므로 아직도 마누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도대체 태고적 모계사회는 언제 사라졌단 말인가. 그런 모계사회가 가부장사회로 바뀐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이 45년동안 말한 자비란 가부장의 것인가? 남성의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모성의 것이고 여성의 것인가?

부처님은 장차 올 세상은 이런 자비의 모성사회를 꿈꾸었는지 모른다.

우녀는 꿈 속에서 오랜만에 인담을 만날 수 있었다. 인담선사는 우녀에게 어떤 남자의 우위도 사양하고 거의 우녀를 스승으로까지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심(下心)의 관행으로 무욕도의 수행을 아무 탈없이 이어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인담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녀의 손을 꼭 쥐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 꿈은 길었다. 꿈 속에서 인담이 떠났다.

섬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광경이 꼭 생시 그대로 실감이 났다. 꿈을 깨어 인담이 쥐고 있던 손을 펴보니 그 손안에 쌀 한 줌이 있었다.

"아니!"

그 꿈은 꿈만이 아니었던가. 그 꿈은 현실이었던가.

우녀는 이전보다 훨씬 야윈 몸으로 굴안에서 나왔다.

바다 전체의 파도소리를 데리고 온 섬 기슭의 커다란 파도소리에 귀가 멍멍해지기까지 하였다. 낮이 저물자 매미들은 다 입을 다물고 나무줄기에 꽉 늘어붙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캄캄절벽은 아니었다. 우녀는 꿈 속에서 인담이 떠나던 선착장으로 넘어갔다. 딱히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셈이었다.

꿈은 꿈이 아니었던가 인담이 쥐고있던 우녀 손 안에 쌀 한줌이…

바다가 쑥 자라나 수평선이 훨씬 높이 올라와 있었다.

여름이 다하는 하늘은 마치 극악(劇樂)과도 같은 뭉게구름을 여기저기 성대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우녀는 그런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한편 그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마지막 매미소리 쓰르라미소리의 그 강렬한 소리를 실컷 듣는다는 실감에 젖어 있었다.

"참 잘도 우는구나… 저것들도 세점(三點)이 있다가 그것을 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틀림없지."

오랜만의 여유있는 독백이었다. 아니 그와 그 자신 사이의 대화였다.

'세 점'이란 한자 마음심(心)자에 있는 세 점을 뜻하므로 마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언제가 인담이 알려준 적이 있다.

알음알이란 이렇게 학습보다는 들은 풍

바람이 불고 있었다. 어디가 새는 것처럼 시원하였다.

"그물에 걸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겠지."

우녀는 북쪽 선착장 쪽을 보고나서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배 한척이 턱 하고 그곳에 매여 있지 않은가. 그것은 떼배 따위가 아니라 어엿한 한 쪽짜리 돛배인데 돛은 내려져 있었다.

꿈 속의 인담이 타고 떠났던 그 배와 같았다.

우녀가 살펴보니 배는 닻이 내려져 있고 밧줄이 선착장의 뾰족한 돌에 매어져 고정되었다. 그전에 매던 말뚝은 지난번의 지진 때문이었는지 큰 비때문이었는지 어디론가 뽑혀져 나가고 없었다.

"어떤 배인지…."

그는 머뭇거리다가 그 배에 올라갔다. 배의 선창 안은 두꺼운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 덮개를 조금 걷어보았다. 쌀이 있다.

"이럴수가!"

우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덮개를 바로 덮어버렸다. 그런 다음 그 배에서 재빨리 내려섰다.

행여나 이 일대 수적들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굴안의 처소로 돌아와서도 배 생각 때문에 마음 속이 한가할 수 없었다.

그는 실컷 잠을 잔 뒤이기도 하지만 난데없는 쌀 실은 배 때문에 그냥 굴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

벌써 별이란 별은 다 나타나 제 빛을 마음껏 빛내고 있었다. 어떤 별은 다른 별과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진작 음력 칠월칠석은 지났으므로 견우성이나 직녀성의 그 절절한 만남은 없다.

그 견우성이나 직녀성의 별빛들도 서로 멀리서 빛의 이야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하늘의 별에서는 애틋한 사랑을 말하는 일이 그렇게도 거룩하고 땅위의 사람들이 나누고자 하는 사랑은 더러움으로 말하는 것인가.

사랑 또는 애욕이란 과연 해탈의 장애인가? 그것을 단 한마디로 내쳐서 죽이지 말 일이 아닌가.

옛 인도 밀교의 금강승파(金剛乘派)에서는 "요니에 링가를 집어넣고 부처님의 일체를 생각하라" "남녀 2근(二根)은 곧 보리열반의 진처(眞處)로다"라 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어느 종파에서는 남녀의 교접을 대락(大樂)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 정토발원의 대락이라는 뜻 말이다.

우녀는 이런 따위 생각보다는 꿈 속의 인담, 꿈 뒤의 쌀 실은 배가 그의 화두없는 마음 속에 화두로 들어와 있었다.

그림·조향숙